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사목회장 이인학 시몬 (408) 234-5037 email : piccpeter@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English Mass	Sunday 12:30PM
	평일미사	화,목요일 오후 7:30 수,금,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예비자교리	매주 화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일 오전 11시 ~ 12시 15분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10분

[제 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 2~)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내놓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독서] 필리 2,6-11
[복음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 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루카 22,14-23,56<또는 23,1-49>

성가	입당 10	봉헌 118	성체 121 174	파견 115		
전례 봉사						
구분	주님수난성지주일(3월 20일)		성삼일(3월 24, 25, 26일)			부활대축일(3월 27일)
	8시미사	교중미사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야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일환 프란치스코	3구역:전윤자 데레사	임승원 루카	채성일 토마스	조선덕 레지나	4구역:김순희 글라라
제 1 독서	최환준 베네딕토	3구역:조진행 바실리오	이건호 요한	이명국 바오로	1 심태규 미카엘	4구역:허순구 라우렌시오
제 2 독서	임승원 루카	3구역:팽정숙 데레사	최수영 분다	이정연 골롬바	3 심승화 헬레나	4구역:허옥진 파비올라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5 권창모 미카엘	독서자
수난복음	채성일 토마스	정석준 요한	—	최대연 다니엘	7 박보라 율리아나	—
	정애리 스텔라	정인경 가브리엘라	—	김영선 안젤라	서간	—

< 미사지향 > - 평일미사 지향은 2쪽에 있습니다.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3/20(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3/20(일)	연 백아네스(효정)	조레지나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뜨락회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이마티아(호철)	이카타리나(상주)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연 정마루(기영)	이아네스(영숙)
	연 서데레사(춘애)	가족		연 김중화/이성원	정데레사(해경)
	연 이요셉(건용)	이비비안나		연 최복동	원프란치스코(광희)
	연 흥안나(순자)	가족		생 조로사(정아)	익명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김엘리사벳(영희)	성우술라
	연 유데레사(춘성)	권아네스(화옥)		생 이마태오(영기)	익명



왜 하느님의 아드님이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감수하셨을까요? 신적 존재란 죽음도, 고통도 겪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죽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왜 고통과 죽음이 필연적인 것일까요? 고통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는데 아무런 가책도 아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죽은 사람도, 나도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밤늦게 돌아오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아내가 병으로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런 아픔도 걱정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만큼 고통을 겪게 되어 있나 봅니다. 우리 사는 인간 세상은.

혹자는 고통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함의 바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행을 시키랍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니깐요. 사실 훌륭한 인물이란 고통스러운 일을 잘 겪어낸 사람들이더군요. 그리고 보니 고통 속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탓일 수 있습니다. 연필을 깎다가 실수해서 손을 베이는 아픔을 겪습니다. 운전을 잘못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내가 잘못하든, 다른 사람이 잘못하든, 그것이 도덕적이든, 물리적이든 그 결과로 고통이 닥칩니다.

나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 닥치는 고통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요한 9,3) 그리고 보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인가 봅니다. 대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마태 26,27-28) 희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영화감독 타르코프스키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다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피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다면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죄악과 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분의 수난과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사악의 희생보다 더 큰 아버지 하느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무엇보다 우리 인간 세상의 고통이 왜 있냐는 물음에 대한 하느님의 답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규만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 지난 주 우리의 정성

< 주일헌금과 참석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63	188	10	261
헌 금	\$417	\$1,328	\$12	\$1,757

< 교무금 > \$1,300

소명환(3-4) 조병국(1-4) 이선희(3) 채성일(1-3) 박호영(3)

< 성소후원금 > \$90

소명환(3-4) 조병국(1-4) 이선희(3) 박호영(3)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빈센트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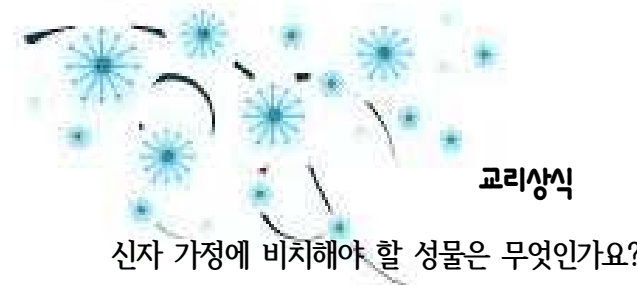
< 부활초/꽃 >

이명국 \$100

< 2차 헌금 > \$817

- 평일미사 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3/22(화)	연	이요셉(건용)	이비비안나
	연	유데레사	가족
	연	이세레나(남희)	익명
3/23(수)	생	염파트리샤 생일	이아네스(명란)



고리상식

신자 가정에 비치해야 할 성물은 무엇인가요?

사제의 축복을 받아 성별된 것이나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을 성물이라 하며, 일상생활의 세속적 용도와는 다르게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데 사용합니다. 신자 가정에 비치해야 할 성물은 이렇습니다. 성경, 가톨릭 기도서, 가톨릭 성가집, 십자고상, 성모상, 묵주, 성수, 성초 등이 있으며 예비신자들도 성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딸

◆ 파스카 성삼일 전례

- * 3월 24일(목) : 주님 만찬미사 저녁 8시
 -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금**
 - * **수난감일 조배(신교실 게시판 참조)**
- * 3월 25일(금) : 주님 수난예식 저녁 8시
 - * **성기복구를 위한 연금**
 - *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 * 3월 26일(토) : 부활성야 미사 저녁 8시
 - * **부활성야 연금**
- * 3월 27일(일) : 주님부활 대축일미사 오전11시
 - * **오전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 각 구역별 음식 바자회

◆ 사순시기 동안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봉헌해 오신 Rice Bowl 을 성당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사순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다.***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부활맞이 대청소** : 3월 20일(오늘) 교중미사 후
* 각 반별 담당 배치도가 친교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모임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Redwood Regional Park 주차장 집합
- * 구역반장회의 : 3월 20일(오늘) 대청소 후 106호실
- * 레지오 아치에스 : 3월 20일(오늘) 성당

◆ 만남의 성경모임 안내

북가주 30대 이상 미혼 남녀(비신자 포함)들이 조마오로 수녀님의 지도 아래 성경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미혼남녀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모임 : 4월 2일(토) 오전 10시 ~ 12시
장소 : 사제관 앞 회의실

3월 구역모임

2	프리몬 S/N	3월20일(일)6시반	유인웅 다투트 맥
	캐스트로벨리	3월26일(토)4시	이은자마트로나맥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일시 : 3월 24일(목) 오후 4시
장소 : 722 Washington St. Oakland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 510-566-0582

◆ Fiat 장학금 및 봉사 인정 프로그램 신청

신청 기간 : 5월 31일까지
상세 정보 및 신청 : www.fiat.org
문의 : 714-702-9830

◆ 성물방 안내

사순 시기 동안 도서/성물을 20% 할인합니다.

◆ 컵청소 당번 안내

3월 20일(오늘) : 3 구역
3월 27일(다음주) : 4 구역 월넛크릭반

◆ 오늘 간식은 유데레사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빈센트 부부께서 본당에 감사헌금으로 \$5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 풍성한 점심을 제공해 주신 것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27일 이곳에서 떠나실 예정이신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은 한 세대 당 월별로 약정하여 내주시면 됩니다.

안국학교 안내

- 3월 26일 : 부활방학 (휴강)

